

2026. 9. 25.

추석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더온누리교회
THEONNURI PRESBYTERIAN CHURCH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84-9

063-211-1324 <http://www.theonnuri.org>

은혜로우신 하나님, 추석을 맞아 흠어져 살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모아 주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논 발 에 오 곡 백 과 거 두 게 하 신 주
 2. 사 막 에 샘 이 솟 아 꽃 피 게 하 시 니 고
 3. 은 혜 로 거 둔 곡 아 식 주 앞 에 바 치 고

목 소 리 가 다 들 어 할 렐 루 야 찬 양
 시 냇 물 노 래 은 하 이 고 산 들 은 춤 바 치 네 세
 구 월 을 받 은 이 몸 주 님 께 따 라 고

철 따 라 거 둔 열 매 주 님 의 은 혜 라
 매 손 른 모 든 땅 에 단 비 를 주 시 리 고
 검 히 무 료 품 어 마 음 을 드 리 고

참 고 마 우 신 주 를 다 찬 양 하 여 라
 오 곡 마이 풍 성 주 께 주 다 복 을 배 주 셧 리 세
 생 명 을 주 신 주 께 주 다 경 배 주 셧 리 세

다함께 드리는 기도 ----- 다 같 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함이 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 씀 ----- 사사기 11장 27절 ----- 다 같 이

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가정”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의 결실을 나누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입다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형제들에게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그를 다시 찾아와 지도자로 세웁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에게 암몬 왕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내 땅을 점령하였으니 이제 평화롭게 돌려 달라". 그때 입다는 곧바로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신을 보내 삼백 년 전 광야 시절의 역사를 차근차근 되짚어 말합니다. 그 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사기 11:23]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나.

이스라엘은 모압이나 암몬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에돔과 모압에게 길을 내어 달라 청했지만 거절당해 멀리 돌아갔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에게도 길만 지나가게 해 달라 청했으나, 시혼이 오히려 군대를 모아 먼저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 온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땅은 암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친히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입다는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이스라엘의 힘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누리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수고와 노력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

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여기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다툼이 자리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정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은 찾아옵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설명을 듣고도 물려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입다가 남긴 마지막 말이 27절입니다.

[사사기 11:27]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는 이렇게 따집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산 지 삼백 년인데,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다가 왜 이제 와서 요구하느냐". 누가 보아도 부당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입다는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을 둘러싼 다툼의 재판장도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과 다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입다는 형제들에게 밀려 집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판결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이 일도 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11]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집에서 쫓겨나 이리저리 떠돌던 입다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백성을 지키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자리에 오르자 자기의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입니다. 보복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섭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에도 넘어졌던 자리, 눈물 흘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모든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는 것처럼, 우리 가정도 지난 일과 앞으로의 일을 모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감사를 말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과 은혜 나눔 ----- 다 같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가족의 연장자께서 선조들의 본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나 성품, 또는 가훈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들끼리 서로 축복하며 감사의 말을 주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마 침 ----- 주기도문 ----- 다 같 이